

Propylene, Tosoh 고장 20달러 상승

FOB Korea 445-455달러 형성 ... 일본 무역상 한국산 3500톤 급구매

Propylene 가격은 5월2일 FOB Korea 톤당 445-455달러로 20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일본 Tosoh의 나프타 크래커가 고장을 일으켜 아시아 프로필렌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주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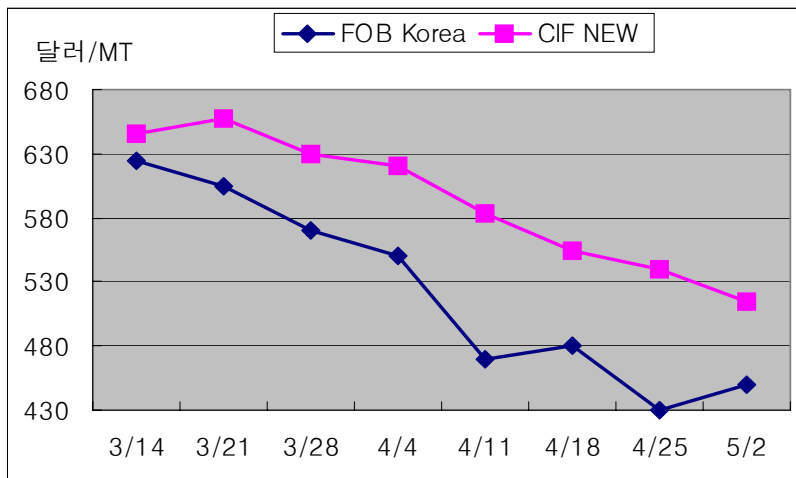
일본 무역상이 5월 중순에서 하순 거래물량 1500톤, 5월 하순 1200톤, 또 다른 5월 하순 거래물량 800톤을 FOB Korea 톤당 450달러에 구매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프로필렌 공급기업들은 일본의 나프타 크래커 고장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CFR China 445달러에 중국에 수출하는 등 프로필렌 상승세가 동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동남아에서는 프로필렌 수급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CFR 470-48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도 7월 거래물량은 CFR 425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Propylene 가격추이



동남아에서는 Singapore Refining의 FCC(Fluid Catalytic Cracker) 4만톤 플랜트가 4월29일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중지했다. SRC의 Pulau Merlimau 소재 석유정제 28만5000b/d 플랜트가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5월2일 Polymer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500-530유로, Chemical 그레이드 역시 500-530유로로 25달러 하락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06>